

홍콩 IB의 2018년 중국 은행부문 업황 전망

① (유동성 사정) 중국 정부의 레버리지 통제 정책이 이어지면서 중국 은행부문은 긴축적 유동성 상황이 지속될 전망

- 중국 정부가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는 은행의 자금조달 통로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과도한 레버리지를 억제하는 정책을 펼침에 따라 은행부문 유동성 사정은 계속 긴축적일 것으로 예상
- 디레버리징과 거래상대방 위험(counter-party risk) 증대로 인해 은행간 시장 금리 등이 상승*하면서 자금조달비용 증가

* 은행간금리(1년물)가 2016년초 3.0~3.5%에서 2017년말 5.0~5.5%로 상승하였으며 CD금리(6개월물)는 같은 기간중 3.0~3.5%에서 4.5~5.0%로 상승

— 특히 예금기반이 취약한 중소형은행의 경우 부외자산(off-balance sheet) 항목과 그림자금유에 대한 규제 이후 유동성 압박 직면

- 2017년말 기준 국유상업은행*(SOCB, State-owned Commercial Bank)은 전체 부채에서 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79% 정도에 달하고 있는데 비해 중소형은행은 동 비중이 60% 내외로 추정(Natixis, 2018.1월)

* Industrial and Commercial Bank of China(ICBC, 中国工商银行), China Construction Bank(CCB, 中国建设银行), Bank of China(BOC, 中国银行), Agricultural Bank of China(ABC, 中国农业银行), Bank of Communications(BOC, 交通银行) 등 국가가 대주주인 대형상업은행

— 또한 미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중국 금리 상승요인으로 가세

② (자본금) 중국 은행부문은 지불능력 저하에 따른 자본확충 압력 증대 예상

- 중국 은행부문은 낮은 수익성과 규제 강화의 여파로 지불능력(solvency)도 저하됨에 따라 자본확충 필요

- 특히 정책당국이 향후 경기대응완충자본(CCyB, counter-cyclical capital buffer) 도입 등 자본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여 중국 은행들은 자본을 적극적으로 늘려야 되는 상황
 - 한편 디레버리징으로 은행의 신용공급이 계속 둔화됨에 따라 기업의 회사채발행이 증가하고 있고 이는 중국 은행의 자본조달 코스트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
- 최근 중국 은행들은 ROE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일반 채권보다 조달비용이 낮은 전환사채를 적극 발행*

* 중국 상업은행들의 전환사채 발행액은 2017년 400억 위안에서 2018년에는 1.23일 현재 발행계획 발표금액만도 1,800억 위안으로 대폭 증가 예상 (Natixis 집계 기준)

③ (수익성) 중국 은행부문의 낮은 수익성은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전망

- 중국 은행의 순이익 증가율이 상승(2015년 2.5% → 2017년(e) 4.9%)하고 있으나 여전히 총자산증가율(2017년(e) 10.8%)을 큰 폭 하회하는 가운데 금년에도 수익개선은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
 - 특히 대형은행과 달리 대출계정(loan book) 규모가 작은 중소형은행은 금리상승에 따른 수혜를 크게 기대하기 힘들
 - 최근 은행대출금리가 상승하고 있지만 대형 국유상업은행(SOCBs)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조달비용도 커버하기 힘든 상황
- 중국 정부의 출자전환(debt-to-equity swap), 그림자금융 규제 등 금융리스크 관리 정책도 은행 수익성 개선을 어렵게 하는 요인
 - 대규모 지방정부 부채의 출자전환으로 은행의 투자계정이 증가한 대신 지방정부 대출에 대한 금리가 큰 폭 하락
 - 그림자금융 관련 수익이 감소하면서 비이자 수익(non-interest income) 증가세 둔화

4 (자산건전성) 중국 은행부문 자산건전성은 개선

- 외형적으로는 중국 은행부문 자산건전성이 국유상업은행을 중심으로 뚜렷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
- 중국 은행부문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유상업은행의 경우 출자전환(Debt-to-Equity Swap) 및 여러 방법을 동원한 문제여신 정리로 부실여신(Stressed Loan<Special Mention Loans + Non-performing Loans>) 비율이 2016년말 5.2%에서 2017년말에는 4.9%로 하락(Natixis 추정)
 - 단,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한 은행 부실여신 정리는 자산관리회사와 보험사 그리고 결과적으로 개인을 내세워 금융부문 전반에서 리스크를 공유토록 하는 조치라는 평가
 - 한편 은행의 부채출자전환(D/E swap) 계획 발표가 지난해 3/4분기 이후 줄어들고 있으며 실제 실행은 공표된 거래계약 건수의 10%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짐

⇒ 중국 은행부문은 정부의 리스크관리에 기인하여 자산건전성은 개선되고 있으나 긴축적 유동성 상황과 자금조달 코스트 증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익성의 큰 폭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

※ 이 자료는 Natixis, “China’s banks in 2018” (2018.1월), Deutsch, “Chinese banks - 2018 outlook” (2018.1월) 등을 기초로 작성